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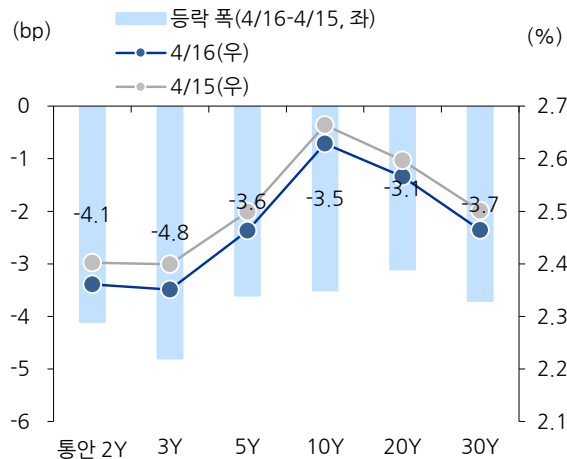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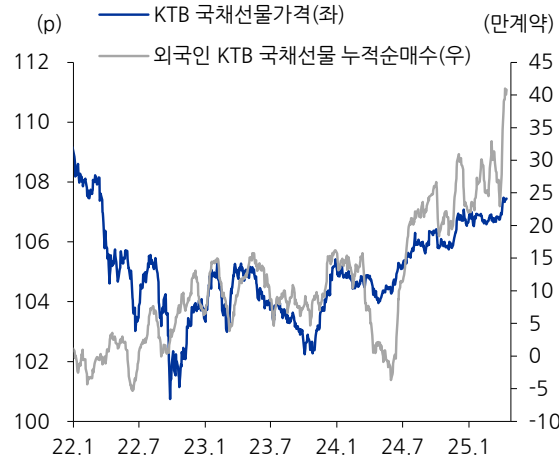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4/16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351%	-4.8	-8.3	-24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629%	-3.5	-10.3	-22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7.8	26.5	29.8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62	17.0	26.0	97.0
	10년 국채선물(KTB)	120.81	45.0	111.0	389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77%	-7.1	-13.5	-46.2
	미국채 10년물	4.278%	-5.8	-6.0	-29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0.1	48.8	42.6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509%	-2.2	-7.6	14.6
	호주국채 10년물	4.292%	-0.8	-6.2	-7.6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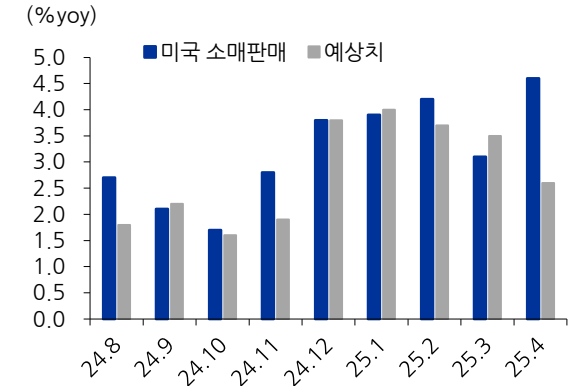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간밤 SLR 완화 기대 속 하락한 미국채 금리 연동되며 강세 출발. 이후 장 중 강세폭을 확대
- 외국인, 장 초반부터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 늘리며 강세 압력 가중. 금통위를 하루 앞둔 가운데 한은 총재는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발언.
- 한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 회의 개최일을 18일로 지정했음을 밝힘. 다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.

미국 소매판매 동향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파월 발언에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채로 자금 유입. 파월, 트럼프 관세로 연준의 이중책무가 충돌할 우려를 드러냄. 그러면서도 시장이 급락할 경우 연준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언급.
- 미 소매판매는 지난 2월에 비해 큰 폭 개선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금리 영향 미미.
- 미국채 20년물 입찰에서 건조한 수요가 확인된 점도 미국채 강세를 일부 뒷받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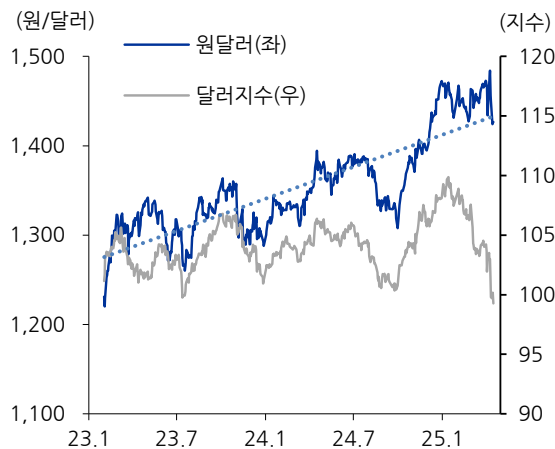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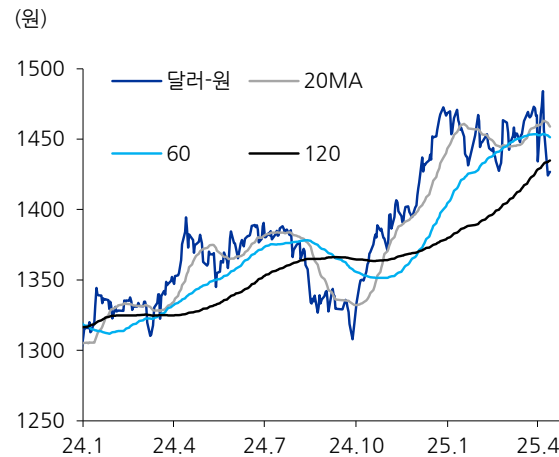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4/16일	1D	1W	YTD
환율				
원/달러	1,426.70	0.1%	-3.9%	-3.1%
달러지수	99.27	-0.9%	-3.6%	-8.5%
달러/유로	1.140	1.0%	4.1%	10.1%
위안/달러(역외)	7.30	-0.4%	-0.6%	-0.5%
엔/달러	141.88	-0.9%	-4.0%	-9.7%
달러/파운드	1.324	0.1%	3.2%	5.8%
헤알/달러	5.87	-0.3%	0.8%	-5.1%
상품				
WTI 근월물(\$)	62.47	1.9%	0.2%	-12.9%
금 현물(\$)	3,343.21	3.5%	8.4%	27.4%
구리 3개월물(\$)	9,208.00	0.5%	6.9%	5.0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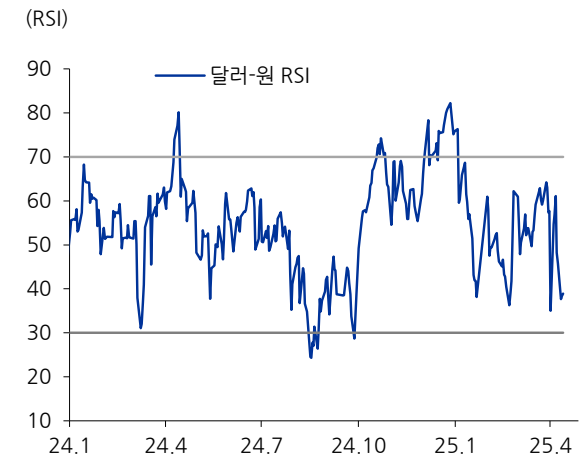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.20원 상승한 1,426.7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15.8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그간 낙폭을 되돌리며 100선 재진입. 달러-원은 +3.50원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꾸준히 반납.
- 아시아 장중 달러는 재차 약세로 돌아섰고 원화도 이에 연동. 장중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으며 금통위를 앞두고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,420원대 초반에서 저점 매수가 하단을 지지하는 양상 계속됨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증시 하락 및 파월 의장 연설을 소화하며 하락.
- 아시아 장부터 약세로 돌아섰던 달러는 뉴욕장에서 파월 의장 연설을 소화하며 추가 하락.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으로 연준의 이중책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물가와 고용이 상충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에 우선할 것이라는 니앙스를 보임. 최근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도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연준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.
- 미국 3월 소매판매는 +1.4%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. 관세 부과를 앞두고 차량 구매가 급증한 영향.
- 한편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, 중국은 미국에게 중국을 존중하고 무역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.